

지역 매아리

‘엘로카넷’ 시범 설치 완료

정읍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솔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엘로카넷을 시범 설치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동초등학교 등 8개 학교에 노란신호등 설치에 이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엘로카넷을 설치했다.

엘로카넷은 위험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는 꼭 필요한 안전 보호구역이다.

횡단보도 앞 보도와 벽면을 노란색으로 만들어 어린이들이 안전한 영역에서 신호를 기다리게 하는 공간이다.

운전자의 ‘어린이안전구역’ 인지를 통해 보행 안전을 심어주는 공간으로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향후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 경찰서와 협의 후 아이들의 통행이 많은 구간을 선정해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려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형 복지공동체 네트워크 발대식

고창군이 최근 공공·민간 사회복지사 30여명이 참여한 ‘고창형복지공동체 네트워크’ 발대식을 갖고, 퍼실리테이션(토론촉진) 교육을 진행했다.

‘고창형 복지공동체 네트워크’는 지역 내 개별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민간자원의 주체들이 상호 연계·협력해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면 맞춤형복지 전담인력, 지역사회보장 통합사례 실무분과위원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고창형 복지공동체 네트워크는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복지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주거취약가구 식생활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행정과 민간이 협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고창군을 만들어 가는데 고창형 복지공동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전북 유일 수소충전소 ‘건립’

부안군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박차 2020년까지 1개소

전북 서남부권 유일 구축 사업으로 도민 관심 집중

부안군은 오는 2020년 하반기까지 제3농공단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 서남부권에서 유일하게 구축되는 사업으로 군은 서남부권 관광 중심지 역할 증대와 2023년 부안 새만금 세계잡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에서 공급하는 오프사이트 방식으로 구축·운영될 계획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예정이다. 충전압력은 700bar, 하루 충전용량은 450kg 이상으로 승용차 70대와 버스 등의 상용차 18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국비 15억 원, 도비 12억 5000만원, 군비 12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군은 수소충전소 건립 이후 관내 농어촌버스를 친환경 수소버스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미세먼지 대응과 주민편익을 증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월부터 분양에 들어간 부

안군 제3농공단지 지원시설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수소시계차 운영, 상용차 충전, 수소 공업용 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는 12월 24일에는 수소연료전지 관련 업체 2개사에서 100여명의 고용을 목표로 제3농공단지 입주를 위한 협약체결을 희망하고 있어 부안군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권인현 부안군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중요하지만 수소전기차 운행으로 조미세먼지 제거 등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선정

시, 국비 28억원 확보 내년부터 추진 예정

정읍시는 ‘제3 일반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2019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제3 일반산업단지에 국비 28억 원, 도비 3억 3천만 원 등을 지원받아 문화와 복지 편의 기능을 집적화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문화와 복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단지 내 근로자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환경 개선과 청년층 유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 소유의 유휴지를 활용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상 2층(연면적 1,710㎡)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한 편의점과 북카페, 생활체육 공간, 다목적홀, 복합문화공간, 옥외쉼터 등을 중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이곳이 복합문화센터 역할에 그

치지 않고 기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시설 구축에 대한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선진적 기업 분위기를 정착하고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생동감 넘치는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입주기업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해 정읍시 문화·복지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인재육성 위해 써주세요”...부안군농 장학금 기탁

부비테크 500만원

세진파워텍 300만원

지역 향토기업인 (주)부비테크(대표 김영옥), 세진파워텍(대표 양수미)은 28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으로 각각 500만원, 300만원을 기탁했다.

(주)부비테크 김영옥 대표는 “지역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통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장학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장학금 기탁에 대한 배경을 전했다.

또한 세진파워텍 양수미 대표는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지역 향토기업 부비테크(사진원쪽)와 세진파워텍은 지역인재 육성 위해 각각 500만원, 300만원 장학금을 기탁했다.



학생들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후원에 대한 배경을 전했다. 권인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장학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장학금을 후원하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 ‘총력’

생명존중 문화 조성·농촌 지역 자살 사전 예방 마련 진행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평가회 실시·보관함 사후 관리

정읍시가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농촌 지역 자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해 시는 농촌 지역 자살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접근을 차단하고, 농약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2017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태인면 3개 마을로 시작했다.

2018년에는 정읍시 자체예산으로 감곡면 3개 마을을 선정해 총 1907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어 2019년에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고부면 9개, 신대인읍 6개 마을에 약 8천300만 원 상당의 보관함을 4157구에 배부했다.

또, 600만 원 상당의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의료비까지 지원받아 농촌 지역 자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28일 순정축협 한우명품관에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지난 4월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전달식 이후 운영된 각 마을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보관함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그 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21개 보급 마을의 이장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마을의 소감 발표와 참여 마을 시상 등이 이뤄졌다.

유진섭 시장은 “노인 자살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으로 농촌 지역 노년들의 총동적인 음독자살 예방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29생명의 전화 ☎1588-9191, 정읍시정의 정신건강 의료비까지 지원받아

농촌 지역 자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 나서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성두마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고창군이 최근 고창소방서장, 의용소방대,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읍 성두마을회관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행사를 가졌다.

앞서 군은 올해 고창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취약계층 70여 가구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안전마을 현판식과 마을이장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했다. 또 화재예방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과 주택 안전점검 등을 진행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세대별 보급한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주민 스스로 유지·관리하고 마을단위의 자율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거듭 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ree wine bottles (Mulberry Wine, Bu-an Odi-bong, and Cheolbukbong) on the left. On the right, there are several gift sets of wine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descriptions.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The bottom right corner includes the company name 'KOREAN TRADITIONAL WINE GANGSANMYEONGJU', a phone number 'TEL : 063-584-9960', and the website 'www.gangsanwine.com'.